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영암여중 학생 50명 진로·직업 체험 운영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6.02 23:43

재난안전상황실·스마트팜 현장 탐방...토마토 수확 체험까지
영암교육지원청 협력...공공기관·농업 현장서 미래 진로 탐색



▲진로직업체험의 날 단체사진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영암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일 영암지사와 관내 스마트팜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암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5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먼저 영암지사를 방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농촌지역 발전 역할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취업 과정과 현직 직원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물관리 원격제어시스템(TM/TC)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첨단기술과 농업의 접목을 생생하게 확인했다. 이어 공사 비축농지에 조성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 스마트팜을 찾아 첨단 농업 시설을 둘러보고 토마토 수확 체험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 청년농업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스마트팜 운영 과정과 농업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참여 학생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스마트팜도 체험해 보니 농업이 생각보다 훨씬 첨단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로를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기자 junjun6816@naver.com